

자치 브리핑

광주광역시 '사전 예매권' 발매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사전 예매권이 18일부터 3월19일까지 발매된다. 온라인 예매는 (재)광주세계 광엑스포 홈페이지(www.photonics-expo2010.org)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18일부터 가능하며, 광주은행 전 지점과 (재)광주세계광엑스포 등 지정 판매처를 통한 오프라인 예매권 판매는 2월1일부터 시작된다. 예매기간에는 현장판매보다 20~34%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4월2일부터 5월9일까지 광주 상무시민공원과 도심 일대에서 '미래를 켜는 빛(Light, Opening the Future)'을 주제로 펼쳐지는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는 일상생활부터 과학, 기술, 산업, 문화,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빛'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빛 종합 전시회이자 빛 축제다.

광주시 올 일자리 33,744개 창출

광주시는 올해 지역 내 민간부문 8천20개, 공공부문 2만5천724개 등 모두 3만3천74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 부령공장 광주이전, 삼성 정밀금형개발센터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콜센터 유치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1만3천372개), 행정인턴제(220개), 저소득층 희망근로 프로젝트(3천826개), 공무원 채용(1천868개), 문화관광 및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신규 일자리를 지역민에게 제공한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전남 땅 여의도 면적 7배 늘어

전남도는 17일 간척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7배인 20km(598만평)의 땅이 늘어 총 토지면적이 1만2천232km(37억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로 생긴 전남 땅은 영암과 해남 영산호 등 간척사업 완공에 따른 18.7km(559만평), 공유수면 매립과 미등로토지 신규등록으로 인한 1.3km(39만평) 등이다.

전남지역의 지면은 모두 563만개로 지면 수로는 전국 1위였고 면적은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SOC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임야와 농지는 감소하고 도로와 공장용지 등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전남도 설 성수품 특별 위생점검

전남도는 18일부터 제수·선물용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한과류·건과식품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 60곳과 대형할인점·버스터미널 인근 식품판매점 210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진이 강타한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16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약탈한 물건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폭도 돌변 난민들 구호품 약탈

아이티 치안 부재... 교도소 붕괴 재소자 탈주도

최근 강진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아이티의 치안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구호물자를 서로 받으려는 과정에서 총성과 칼부림이 난무하고 있으며 견디다 못한 아이티인들이 도미니카 등이 이웃국가로 탈출에 나서고 있다.

강진 5일째인 17일까지도 매몰자 상로당수가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물·음식·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군 헬리콥터가 구호물자가 든 상자를 내려놓으면 총과 칼, 돌을 든 젊은 남자들이 서로 빼앗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약자와 환자들은 구호품을 얻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싸움을 말리려고 현지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보지만 이들이 다시 생필품으로 물러드는 데엔 몇 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16일에는 구호품을 나눠주던 도미니카인 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생했다.

아이티 당국과 유엔평화유지군의 치안 유지 역할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수도 포르토프랭스에는 권총이나 칼, 망치, 돌 등을 손에 든 약탈자들이 때를 지어 다니고 있다.

이들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무너진 상점이나 건물 잔해로 들어가 생필품이나 암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훔쳐 나가고 있다.

포르토프랭스 교도소가 붕괴 이후 탈주한 3천명의 재소자 중에는 한 때 아이티의 군벌로까지 불렸던 조직폭력 세력의 두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사회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일 참관 속 '무력시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훈련 참관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비난하며 '보복 성전'을 거론한 후 첫 '무력시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잇따라 오르면서 군통수권을 장악한 이래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인민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북한 언론이 소개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훈련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영접 보고를 받은 후 전망대에 올라 훈련 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훈련을 지켜봤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훈련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무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을 단숨에 짓밟게 버리고 조국을 사수할 열적의 투지에 충만한 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송은 또 "쌓이고 쌓인 분노의 분출인 듯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포성 속에 순식간에 전투를 승리로 결속하는(마무리하는) 가슴후련한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쌓이고 쌓인 분노'란 북한

보복성전 위험 후 이틀만에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

이 남한 등 외부에 던지는 우회적 발언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방송은 김 위원장이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 격파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킬 수 있게 준비된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훈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참관에는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 국방위 위원 겸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국방위 위원 겸 군 총참모장,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중앙위 책임간부와 군부대 지휘관들, 국방공업 부문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 사회 책임일꾼 등이 대거 동행했다. 그러나 방송은 정확한 훈련 장소와 일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아이티 "사망자 최대 20만명"

"주택·학교 등 2,131개 붕괴"

각국, 자국민 피해 파악 총력

최근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택, 학교, 병원 등 최소한 2천131개의 구조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티의 폴 안투안느 비엔-에메 내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현재까지 5만명의 시신을 찾았다"며 "모두 10만명에서 2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이 언급한 5만명, 장 막스 벨레리브 아이티 총리가 추정한 10만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루이스 공안장관은 "아이티 정부는 필사적인 생존 의지가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약탈·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곳에 경찰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도 자국 국민 피해를 집계하느라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실종자가 워낙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아이티 대사관 직원 1명을 포함해 6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매몰자 수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는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천415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경우 강진 당시 아이티에 머무르고 있던 170여명 중 27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4명의 중국 평화유지군이 무너진 건물 아래 매몰돼 있으며 이외 4명이 행방 불명 상태다. 6명의 프랑스인이 사망했으며, 유엔에서 일하던 영국인 1명도 생사 확인되지 않고 있다.

80여명의 멕시코 국민 중 위치가 확인된 사람은 42명에 불과하다. 2명의 스페인 국민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트리아인 건설 노동자 1명도 사망했다.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 건물 붕괴로 37명이 사망했으며 330여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산하 합동연구센터(JRC)가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비교 관측한 결과, 1천118채의 단독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아이티 돕자" 한목소리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의료 지원팀과 구조대를 파견하고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지원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종교·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주고 광주대학교는 15일부터 광주·전남 119곳의 성당에 아이티 지진 상황을 알리고 주말 미사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아이티에 보낼 후원금이나 구호물품을 모으기로 했으며 긴급지원자금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정교회 등 종교단체도 주말·휴일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나섰으며 절망에 빠진 아이티를 위한 신자와 시

민들의 성금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자체 연락망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국제구호개발기구 NGO 월드비전' '지구촌 공생회' 등 기부단체와 기부방법, 모금 통장 계좌번호를 올리는 등 구호품과 성금모금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용승 의원(광주 광산)은 17일 광산을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당원 100여명과 함께 광산구 삼암동 롯데마트 앞에서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아이티 사태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빈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더욱 안타깝다"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먼저 나서서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티의 아픔을 끌어안자"고 호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and '선량부모와 '당신의' 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Nong-on' (농온)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농·온 콩수기 판매 월 19,900원'. It shows vario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콩수기프라자 1544-1219.